

경영학의 이해 PART 2

경영은 네트워크다

PART 2. 경영인 네트워크다

1장. 유연과 창발적 리더십

✓ 불편한 우연에 대한 혐오

: 2006년 9월 2일 196회차 로또 1층 추첨 결과- 35,36,37,41,44,45

(이 번호로도 15명의 1등 당첨자 배출)

: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상황과 결과를 참지 못함

✓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비합리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임

☞ 9·11 테러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때로는 거부감을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함

✓ 통제할 수 없어서 우연을 싫어하고 피하려는 경우

: 취업 준비 대학생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것도 우연을 참지 못하는 성향과 관련되어 있음

: 수입, 안정성, 교육 및 복리후생 등이 중소기업보다 나은 뿐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것이라는,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우연적일 것이라는 생각

✓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연을 싫어하는 경우

: 조직의 리더들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조직이 우연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음

: 자신의 통제권을 사용해 '군기'를 잡거나 운영체계를 재구축

우연을 혐오하는 두 가지 이유

✓ 우연은 불확실성, 불확실성은 위험(*단선적인 사고방식)

: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통제를 지나치게 가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

: 조직 운영에서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생각의 다양성과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우연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

✓ 유연함과 자유분방함

“한 번도 비행기를 놓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공항 대합실에서 허비한 사람”이라고 비꼼(경제학자 헤르베르트 기어슈)

우연을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

✓ 살아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나타낼 수 있는 특이한 능력

: 부분(하위계층)에서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전체(상위계층)에서 갑작스럽게 불쑥 나타나는 현상

(예.) 아프리카의 버섯흰개미는 4미터의 탑형 둥지를 건설, 애벌레에게 먹일 버섯을 재배하는 등 개개의 개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을 발휘

: 국제사회, 지역사회, 기업, 학교, 동호회 등 모든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음

✓ SERENDIPITY(세렌디피티)는 창발성과 거의 동일한 의미

: 학사학위소지자인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의 '02년 노벨 화학상 수상

- '탈리이온화법'이라고 줄여 부르는 질량분석법과 핵자기공명 분광법도

: 벤젠(BENZENE)의 화학구조를 고민하던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는 졸다가 꿈 속에서 뱀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고 벤젠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음

☞ 우연의 결과

창발성(創發性, Emergence)

✓ 미국의 백화점 노드스트롬

"... 우리 직원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,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하시는 대로 행동하세요. 다른 규칙은 없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윗사람에게 물어보세요..."

☞ 직원의 자율성을 보장, 자율성 위에 꽃피는 창의성

✓ 포춘지의 근무여건이 가장 좋은 100대 기업

: 구글과 지넨텍('06년 1위와 2위)

- 직장은 일하는 장소 이상의 즐거운 놀이터

✓ 우연은 '방치한다'는 의미의 '방임'과 다름

: 자유에는 반드시 자율이 전제되어야 함

자율(autonomy)은 규정 또는 규칙(rule)에 의한 조직 운영과는 다르다!

: 지속적인 조직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

자유로움과 통제 사이, 불확실성과 확실성 사이, 우연과 효율성 사이에서
적절한 무게중심을 찾는 것이 중요함

✓ 우연을 수용하고 그 우연으로부터 세렌디피티를 이끌어 내는 것,
바로 창발적 경영을 이끄는 리더십의 시작